

7/15 조정중지! 총파업투쟁 돌입!

7/11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7/15쟁의권 획득

사측, 조정회의 완전히 무시!

7월 15일(월) 16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 사측 교섭위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사측은 교섭위원도 아닌 차장, 과장급 인원들을 내세워 조정회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노동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노조를 우습게 본 것이다.

결국 이 날 조정회의는 바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아무 권한도 없는 사측 참석자들과 조정회의가 될 리가 없었다. 이제 지부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성의없는 태도로 임단협에 임하는 사측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019 총파업투쟁 승리!

최저임금이 20년만에 최저 인상율을 기록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자본의 공세가 거세다.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도 그만큼 앞길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를 더 숨막히게 만들고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하려고 한다. 지역의 일진자본은 노조파괴에 혈안이 돼있다. 지부는 2019 임단투 승리, 노동개악 저지, 일진 노조파괴 분쇄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지부의 단결된 힘으로 2019임단투를 정면돌파하고, 노조 파괴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진 자본을 확실하게 압박할 것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투쟁일정

7/16(화)

12:30 일진그룹 본사 타격투쟁 (서울 일진그룹 본사)

14:00 노동개악 저지! 국회 투쟁 (국회 앞)

7/18(목)

14:00 지부 총파업대회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지부 총파업대회

노동개악 저지! 노조파괴 일진자본 규탄! 2019임단투 투쟁승리!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20년만에 최저 인상율!
자본의 경제위기 총공세로
2019 임금교섭도 가시밭길!

7/15~18 국회 노동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최저임금법 개악
노조법 개악으로 파업 무력화

일진그룹의 끝없는 야욕
노조파괴!
우리 지역에서 더이상의
노조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14시

장소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재적인원 55,639명
투표인원 49,544명

찬성 43,322명 (87.4%)
반대 6,062명